

【발표7】

<제주목사 순력행차>에 관한 연구

오 승 언¹⁾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1. 서론
2. 제주도 개관
3. 『耽羅巡歷圖』 이해
4. '대정조점'에 나타난 순력행차의 특징
5. 순력행차에 나타난 기치와 병기분석
6. 결론

1)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장

1. 서론

순력(巡歷)은 조선시대에 관찰사(觀察使)가 자기 관할 내의 각 고을 민정을 시찰하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순선(巡宣)·순도(巡道)·순도(巡都)·행도(行都)라고도 불리었다. 이로 미루어 보아 <탐라순력>이라는 말은 탐라(耽羅)라는 지역의 책임자가 관할지인 탐라의 각 고을 민정을 시찰하였던 것²⁾을 가리키며, 그러기에 『耽羅巡歷圖』는 그 일을 그린 화첩임을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다. 본고는 『耽羅巡歷圖』를 중심으로, 제주병마수군절제사³⁾ 등을 겸하였던 제주의 목사의 순력행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는 물론 『耽羅巡歷圖』이다. 특히 대정현의 군사훈련 상태와 조방장, 성정군 등으로 이루어진 군사와 군기(軍器), 병기(兵器) 등을 집중 점검하였던 <대정조점(大靜操點)>의 그림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 그림은 다른 그림에 비해 보다 많은 순력의 행차도를 담고 있기에 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며 다른 그림은 보조자료로 활용한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행해졌던 제주 목사의 순력을 기록한 『耽羅巡歷圖』에 관한 선행연구물로는 탐라순력도연구회의 『탐라순력도연구논총』⁴⁾, 김오순의 『탐라순력도산책』⁵⁾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耽羅巡歷圖』의 내용 및 그림을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 및 접근한 성과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정작 제주 목사의 순력행차 자체에 대한 이해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정조점(大靜操點)>을 그린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것에 나타난 행차의 구성원 및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변방(邊方)이었던 제주의 지방 순력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행사(文化行事) 등에 고증을 거친 문화(文化) 자원(資源)으로서 목사(牧使) 순력(巡歷) 행차(行次)가 이용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기틀

2) 관찰사는 도의 중심지에 감영(監營)을 두고 지방행정을 집행하기도 하였으나, 관내 각 처를 수시로 순회·감독하는 순력이 본래의 임무였기 때문에 한곳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직책이라 하여 평안·함경 2도의 관찰사 외에 다른 6도의 관찰사는 가족을 임지(任地)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였고, 임기도 1년으로 하였다가 뒤에 2년으로 연장하였다. 『문헌비고(文獻備考)』에 보면 '관찰사 8명을 두고 그들이 순찰사(巡察使)를 겸하게 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관찰사의 직무 중 순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형준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사』, 제주시, 2005. 345~359쪽에 의하면 제주 목사(牧使)는 절제사 이외에도 만호(萬戶), 도안무사, 안무사, 방어사 등의 직책을 겸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4) 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 2000.

5) 김오순, 『탐라순력도산책』, 제주문화, 2001.

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왜구(倭寇)의 잦은 출몰을 방비하기 위한 군사 요새(要塞)로서 3읍 9진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던 제주에서 순력(巡歷)은 방어 시설에 대한 군기 점검이라는 순기능 이외에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준 역기능으로도 작용했던 것⁶⁾ 같다. 이와 관련된 순력의 기능적 연구는 고를 달리하여 할 것임을 밝히며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2. 제주도 개관

제주도는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의 섬으로 제주 본 도와 그 부속도서 그리고 추자군도로 이루어져 있다. 면적은 1,845km²로 울릉도(72.3km²)의 25배, 서울(605.3km²)의 3배에 해당하는 큰 섬이다.

화산섬 제주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바다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그러기에 다른 지역과는 구분되는 온난다습(溫暖多濕)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점이 또한 구분된다. 민속사회에서 주 생업이 농경이었음은 제주도(濟州道)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곳 제주에서의 농경은 곧 ‘잡초와의 전쟁’을 의미할 정도로 온난(溫暖)다습(多濕)한 기후 속에서 자란 많은 잡초들과 힘든 전쟁을 치루어야 할 만큼 농경은 힘든 작업을 수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를 배태하는 배경이 됨은 물론이다.

제주도는 화산섬이라는 독특한 지정학적 환경과 옛 탐라국의 역사가 깊은 특이한 민속문화로 하여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지리적으로는 섬 한가운데 우뚝 솟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풍부한 동. 식물을 거느린 산림과 계곡, 기암과 소연(沼淵), 기생화산과 분화구, 동굴과 초원 등 오밀조밀한 자연경관이 천해의 아름다움을 빚어낼 뿐 아니라, 섬의 4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서 바닷가의 기암과 폭포, 백사장과 도서(島嶼) 등 해안 일대가 천연미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곳이어서 전설(傳說)과 신화(神話)의 요소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제주도에 의하면⁷⁾ 삼다(三多:돌, 바람, 여자), 삼무(三無:거지, 도둑, 대문), 삼려(三麗:인심, 자연, 열매) 삼보(三寶:자연과 민속, 언어, 식물)의 섬이면서, 영주십경(瀛州十景)⁸⁾의 빼어난 경관을 함

6) 정약용(남만성역), 『牧民心書』, 대양서적, 1975. 476~478쪽

7) 제주도 관광진흥과, 『主要觀光行政現況』(2003년도), 제주도, 2003, 21쪽

게 지닌 곳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 그러나 농업과 어로, 목축을 주축 산업으로 살아왔던 때만하더라도 화산회토의 토양을 가꾸어야 했고, 돌, 바람 등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했기에 삶 자체는 화산섬의 척박한 토양만큼이나 어려웠다. 여기에 더하여 절해고도의 변방으로 유배지(流配地)였으며, 탐관오리(貪官汚吏)의 수탈 또한 만만치 않았던 곳이고 보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출로(出路)로 초자연적인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곳⁹⁾으로 보인다.

화산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에 삶의 터전을 잡은 제주인들은 바람 부는 땅을 개척하고 격랑의 세월을 이겨내면서, 제주만의 전통 문화를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물려주었던 곳이기도 하다. 이들을 통해 제주는 일찍부터 ‘민속의 보고(寶庫)’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특이한 세시풍속과 마을마다의 민간신앙과 신화, 전설 등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었다. 이들 전통 문화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이어져 와 제주만의 독특함으로 자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료는 관광자원(觀光資源)으로까지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화와 현대화는 전통적인 삶을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많은 석재, 목재 민속품들은 석유화학 제품으로 바뀌어 생활의 이기(利器)로 자리하여 왔던 것이다. 더구나 급격히 이루어졌던 생활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생활 형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변했으며, 거기에 사용되었던 각종 민속품들도 하루를 달리하면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제주인들의 전통적인 삶이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러한 때에 오랜 역사를 지닌 문화민족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우리 민족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역사적 근거를 지니는 것이면 더욱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이유에서 제주 목사의 순력 행차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곳 제주는 목사(牧使), 판관(判官), 현감(縣監), 찰방(察訪), 교수(教授), 심약(審藥), 검율(檢律), 왜훈도(倭訓導) 등의 관리가 근무하며 통치하였던 곳¹⁰⁾이다. 물론 목사의 경우 방어사(防禦使)나 절제사 등의 직을

8) 제주도 관광진흥과, 앞의 책, 21쪽에 의하면 城山日出, 鹿潭晚雪, 橘林秋色, 瀛邱春花, 山浦釣魚, 古藪牧馬, 正房夏瀑, 山房窟寺, 紗峯落照, 靈室奇岩의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9) 金東燮, 『濟州道の 農機具』, 濟州道民俗自然史博物館, 1998. 22쪽

10) 이원진(김상조역), 『耽羅志』,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소, 1991. 4쪽

검직하기도 하였다.

3. 『耽羅巡歷圖』 이해

『耽羅巡歷圖』는 병와(瓶窩) 이형상(李衡祥)이 제주목사로 재임 당시인 숙종 28년에서 29년(1702~1703)에 제주도 관내를 순력하면서 보고 느낀 자연, 역사, 산물, 풍속 등을 화공(畫工) 김남길로 하여금 40폭의 채색 그림으로 그리게 한 화첩(畫帖)이다. 오랫동안 그의 후손들이 관리해 왔으나, 지금은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는 『남환박물』과 함께 제주의 귀중한 자료로, 지난 1979년 국가지정 보물 제652-6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耽羅巡歷圖』는 그 크기가 세로 55cm, 가로 35cm의 장지(壯紙) 위에 그린 그림이다. 제주도 지도인 한라장축 1면과 1702년의 행사기록도 39면, 그리고 호연금서 1면과 이형상이 적은 화기(畫記) 2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구성 형식은 제일 마지막인 호연금서를 제외하고는 화면을 붉은 선으로 3등분하였다. 제일 윗부분에는 해서체로 4자씩으로 된 제목을 써넣었고, 중단에는 김남길의 그림이 있으며, 밑부분에는 행사참가 인원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림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만에 걸쳐 실시한 제주도 순력 장면으로, 모두 22면이 그려져 있다. 순력지는 제주목을 출발하여 화북, 조천, 별방, 수산, 정의, 서귀, 대정, 모슬, 차귀, 명월, 애월을 돌아 귀환한 후, 네 차례의 행사장면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제주, 정의, 대정 등지에서 베풀었던 양로회(養老會) 광경을 그린 것이 3면이 있고, 명승지(名勝地)를 그린 것이 5면, 감귤 봉진(封進)과 과거(科擧) 등을 그린 9면이 추가되어 있다. 지역적으로는 서귀포 지역이 모두 5면¹¹⁾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耽羅巡歷圖』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독특한 가치를 갖는다.

먼저, 회화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궤반차도식(儀軌班次圖式)의 기록화(記錄畫)로 분류된다. 우리나라 회화(繪畫) 사상 많은 기록화 가운데에서 이만큼 생생하고 자세하고

11) 정방탐승(正方探勝) - 11월 5일, 정방폭포를 탐승한 것과. 천연사후(天淵射候) - 11월 6일, 천지연폭포에서 활쏘기 시합을 한 것. 서귀조점(西歸操點) - 11월 5일, 서귀진에서 군사훈련과 군기와 우마를 점검한 것. 현폭사후(懸瀑射候) - 11월 6일, 중문의 천제연폭포에서 활쏘기 시합한 것. 고원조점(羔園訪古) - 11월 6일, 고원이라는 과수원에서 풍악을 즐기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

정밀하게 그린 기록화는 드문 정도이다. 저자, 화공, 제작동기, 연대 또한 확실하다. 기록화로서 충실성을 높이 평가할만한 작품이다. 그림으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글로써 표현하고, 글로서 부족한 부분은 그림으로 표현하여 18세기 초 제주의 실상과 문물을 명쾌하게 기록해냈다. 그리고 『耽羅巡歷圖』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경을 정확하게 사생하고자 하는 화가(畵家)의 노력이 절실함을 읽을 수 있다.

둘째, 민족지(民族誌)의 성격을 갖는다. 조선 숙종때 제주의 지리, 풍속, 성곽, 군사병력, 조점제도, 공물세제, 지방관 행차, 경제생산, 비축미곡, 과거제도¹²⁾, 연례행사, 읍성(邑城)과 진성¹³⁾, 군기집물, 목장규모, 병적현황, 풍류연악, 감귤생산 등등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시대 마정(馬政)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기록 또한 사료적 가치가 크며, 당시의 제주의 관아 건물과 고적(古蹟)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원과 재현에도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처럼 『耽羅巡歷圖』는 굴(橋)과 군마(軍馬)의 진상, 왜구의 침범을 방어하기 위한 성(城)의 구축 등, 제주가 갖고 있는 지형과 토산은 물론, 방어실태를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인 것이다.

4. ‘대정조점’에 나타난 순력행차의 특징

『耽羅巡歷圖』 제31면 <대정조점(大靜操點)>은 임오년(1702) 11월 초10일에 행해진 것으로 현감(縣監)과 성장(城將) 2, 치총(雉摠) 4, 인민(人民) 797호(戶), 전답(田畓) 149결(結), 문묘(文廟)제기(祭器)제복(祭服)고책(古冊), 성정군(城丁軍) 224명, 군기(軍器) 십(十)물(物), 목자(牧子)보인(保人)병(并) 223명(名), 마(馬) 849필(匹), 흑우(黑牛) 228수(首), 창곡(倉穀) 1,950여석(餘石)을 확인 점검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

12) 조선의 통치이념이었던 유교의 보급을 위해 본과 응시자격 시험이었던 초시(初試)가 목사를 시험관으로 임명하여 치루어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13) 자주 출몰하여 어려움을 주었던 왜구(倭寇)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방어시설로서 3읍 9진의 성(城)과 봉수(烽燧), 연대(煙臺)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마을마다 있는 술대왓, 사장밭 등이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활쏘기 연습장이었음을 알 수 있게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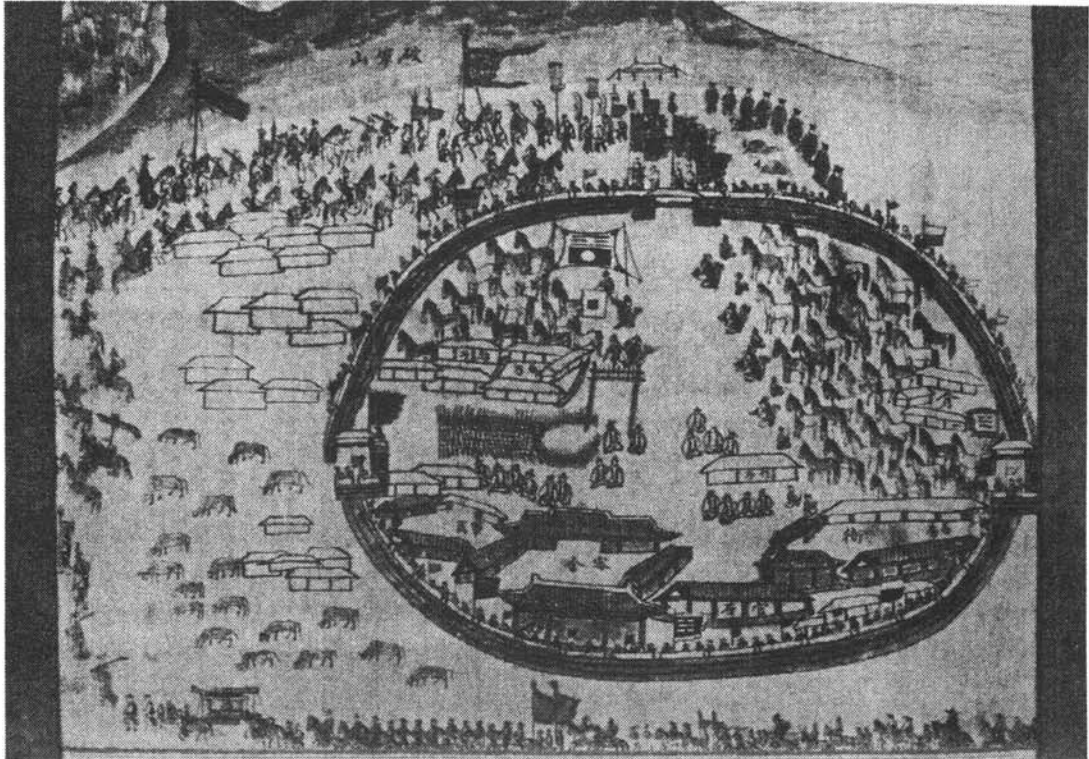


그림 1 <탐라순력도내 대정조점>

그림에는 전면(前面)에 파군산(破軍山)과 바다를 배치하고 왼쪽에 산방산(山房山)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순력행차에 참가한 사람과 기물을 자세하게 배치하였고 대정(大靜)읍성(邑城)과 성벽(城壁) 위로 성정군(城丁軍)의 배치 모습을 그렸다. 성 외부에 민가(民家)와 흑우(黑牛)를 그렸고 그 내부에 다양한 관아(官衙) 건물을 배치하였는데, 좌 중앙에 도청(都廳), 향청(鄉廳), 그 아래 군기청(軍器廳)을 배치하였다. 그 오른쪽에 객사(客舍)를 배치하였으며, 그 위쪽에 작청(作廳)을 그리로 그림 아래쪽 하단에 관청(官廳)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그 오른쪽에 넓게 마방(馬房)을 그렸다. 읍성(邑城)의 상부에는 점마(點馬)를 위한 말의 집결 모습과 활쏘기를 점검하는 모습도 아울러 그려, 조점(操點)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순력(巡歷)에 참가한 행차도를 살펴보면 우선 대정읍성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강학(講學-儒生)과 관원(官員)으로 9명과 3명 등 12명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수(旗手) 6인

청도기와 금고기를 든 기수 각 2인이 대정읍성 앞에 도착하여 대열을 갖추어 서 있

다. 그리고 군기(軍旗)로 보이는 기(旗)를 든 기수(旗手) 2인도 보인다. 이들은 전복(戰服)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2. 영전(令箭)과 언월도(偃月刀) 4인

영전과 언월도를 든 군졸 각 2인이 그 다음을 따르고 있다. 이들은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3. 악사(樂士) 2인

나팔(喇叭)을 불고 있는 악사 2인이 따르고 있다. 이들은 홍전복을 입고 호수(虎鬚)를 붙인 병거지를 썼다. 나팔은 주로 대열의 배치를 맡는다. 혼자서 부는 것을 호령을 맡는 것이고, 길게 내는 소리는 군졸(軍卒)을 집합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북을 두드리면서 부는 것은 대오(隊伍)을 벌려 서라는 의미라고 한다. 나팔을 부는 악사의 모습은 서귀조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4. 교룡기수(交龍旗手) 3인

교룡기를 들고 말을 탄 기수와 그를 보좌하는 군졸(軍卒)이 따르고 있다. 이들 3인 모두는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5. 군기수(軍旗手) 2인

군기(軍旗)를 하나씩 든 군졸이 따른다. 이들도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6. 조총수 2인

조총(鳥銃)을 어깨에 매고 홍전복에 홍색의 고깔모를 쓴 군졸 2인 따르고 있다.

7. 성장군(城將軍) 2인과 목자(牧子) 2인

목자(牧子)가 끄는 말을 탄 성장군 2인이 따르고 있다. 목자는 전복에 병거지를 썼으나, 장군들은 전복을 입고 전립(戰笠)을 썼으며 전통(箭筒)을 매고 있다.

8. 군기수 2인

군기를 하나씩 든 군졸이 따른다. 이들은 앞에서와는 달리 무늬가 있는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9. 조총수 2인

조총을 어깨에 매고 홍전복에 홍색의 고깔모를 쓴 군졸 2인 따르고 있다.

10. 좌독기수(坐纛旗手) 3인

좌독기(坐纛旗)¹⁴⁾를 들고 말을 탄 군관인 기수(旗手)와 그를 보좌하는 군졸이 따르고 있다. 이들 3인 모두는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11. 군관 2인

군관들은 옥단령(玉團領)을 입고 주립(朱笠)을 썼으며 전통(箭筒)을 매고 있다. 각 대오(隊伍)에 한 명씩 자리하여 따르고 있다. 찰방(察訪)¹⁵⁾의 직을 하고 있는 군관(軍官)인지도 모르겠다.

12. 목자(牧子) 2인

상자(箱子)를 실은 말을 끌고 가는 군졸 2인이다. 이들도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순력에 관한 문서를 담은 피상(皮箱)과 관인함(官印函) 등의 상자, 관복을 보관했던 사모갑(紗帽匣)¹⁶⁾ 등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3. 시녀(侍女) 2인

말을 탄 시녀의 모습이다. 머리를 얹고 그 위에 병거지를 썼다. 그리고 전복을 입었다. 남장(男裝)을 한 시녀로 보인다.

14. 성장군(城將軍) 9인

전복을 입고 전립을 썼으며 전통을 맨 장군이 말을 타고 행렬의 오른쪽에 대열을 형성하여 따르고 있다. 순력(巡歷) 행차의 맨 앞에 갔던 기마(騎馬) 군관(軍官)이었던 전마(前馬)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5. 통인(通引) 2인

목사(牧使)와 군관(軍官), 판관(判官) 등을 보좌하였던 통인으로 보인다. 무늬가 있는

14) 악학계법 권6에 의하면 기(旗)의 길이는 4척 1촌 5푼(약125.7cm)으로 한쪽으로 접을 만들며, 깃대의 전체길이는 8척 6촌(약261cm)이고, 깃대의 지름은 1촌(약 3cm)으로 깃대 머리에는 나무로 만든 봉새를 꿸고 주모가 하나 있으며, 훈백을 잇대고 있다고 한다. 해마다 경칩(驚蟄)과 상강(霜降) 때가 되면 독제(蠶祭)라고 불리는 제사(祭祀)를 행하였으며, 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에는 음악과 무용이 따랐다고 한다.

15) 조선시대 각 도의 역참(驛站)을 관리하던 종6품의 외관직, 고려 때에는 지방의 역을 담당한 관리는 시대에 따라 명칭이 약간씩 변천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역승(驛丞)과 정역찰방(程驛察訪)이 함께 설치되었다. 정역찰방은 1402(태종2) 경기지방의 역로를 고찰하기 위하여 파견된 것인데, 1433(세종15) 이전까지도 전라도·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의 각도에 1~2인씩 파견되었다. 정역찰방의 임무가 역승의 잘잘못을 규찰하거나 주군수령(州郡守令)의 탐학과 민간의 고통을 살펴 엄히 다스림에 있었다는 사실에서 정역찰방이 둔 찰방의 전신(前身)으로 추측된다. 그 뒤 1457(세조3) 7월에 최초로 전국의 역승 일체를 혁파하고 찰방으로 대체하였다. 찰방은 대체적으로 역리(驛吏)를 포함한 역민의 관리, 역마보급, 사신접대 등을 총괄하는 역정(驛政)의 최고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북방지역에서는 함배(合排·함경도·평안도 지방의 연안에 설치한 군사적 성격의 역촌)를 순행하면서 부방(赴防)의 임무도 수행하였다.

16) 사모를 보관하는 함을 가리킨다. 사모는 조선시대 백관(百官)이 주로 평상복에 착용하던 관모였으며, 혼례 때에는 서민에게도 사모의 착용이 허용되었다.

전복(戰服)에 호수(虎鬚)를 꿰은 흑립(黑笠)을 썼다. 명령문을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한 판(板)과 관인(官印)을 든 것으로 보인다. 목사(牧使)는 병부(兵符)¹⁷⁾, 교서(敎書)¹⁸⁾, 유서(諭書)¹⁹⁾ 등의 명령 등을 현지에서 받아 집행하기도 한다.

16. 성장군(城將軍) 2인

전복(戰服)을 입고 전립(戰笠)을 썼으며 전통(箭筒)을 맨 장군이 말을 타고 행렬의 오른쪽에 대열을 형성하여 따르고 있다.

17. 군관(軍官) 2인과 일산(日傘) 목자(牧子) 1인

옥단령(玉團領)을 입고 주립(朱笠)을 썼으며 전통을 맨 군관이 일산(日傘)을 설치한 말을 끌고 있는 목자를 앞뒤에서 호위(護衛)하고 있다.

18. 군기수 2인

군기(軍旗)를 하나씩 든 군졸이 따른다. 이들은 앞에서와는 달리 무늬가 있는 전복(戰服)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23. 기수(旗手) 2인

청도기(淸道旗)를 든 기수 2인이 마병(馬兵)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20. 서자(書者) 2인, 목자(牧子) 1인, 마교(馬轎) 4인, 목사(牧使) 1인, 예비 마교 2인

목사(牧使)는 목자가 끄는 말교자(馬轎子)를 타고 앞 뒤에는 그를 돕는 교군(轎軍), 서자(書者) ²⁰⁾등 4인의 도움을 받는다. 교군은 앞의 기수(旗手)와 같이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쓰고 말을 타고 앞 뒤에 섰으며, 서자도 전복에 병거지를 썼으나 앞에서 걷으면서 돕고 있다.

21. 판관(判官) 현감(縣監) 3인

17) 군대를 동원할 때 쓰던 부신(符信), 발병부(發兵符)라고도 한다. 직경 7cm, 두께 1cm 가량의 등글며 납작하고 곱게 다듬은 나무쪽의 한 면에 발병(發兵)이라는 글자를 쓰고, 다른 한 면에는 '어느 도(道) 관찰사(觀察使)', '어느 도 절도사(節度使)'라는 칭호를 썼으며, 그 한가운데를 잘라 우반부(右半符)를 관찰사·절도사·제진(諸鎭)에 주어 보관하게 하고, 좌반부(左半符)는 궁중에 보관하게 하였다가, 발병을 지령할 때에 임금의 교서(敎書)와 함께 좌반부를 내려주면, 그것을 우반부와 맞추어 부합한 뒤라야 징병에 응하게 하였다.

18) 국왕이 내리는 명령서. 훈유서(訓諭書)·선포문(宣布文)의 성격을 가진 문서를 가리킨다.

19) 국왕이 군사권을 가진 관원에게 내리는 명령서, 조선시대에는 한 지방의 군사권을 위임 받은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留守)등이 왕명이 없이 자의로 군사를 발동하거나 역모에 의한 동병(動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병부와 같은 밀부(密符)제도가 있었다. 국왕이 밀부를 관원에게 내릴 때 함께 내리는 유서는 그 관원에게는 생명과 같이 귀중한 것으로서 유서통(諭書筒)에 넣어 항상 지니고 다녔다.

20) 고려시대의 서리직(胥吏職), 여기서는 미입사직(未入仕職)으로 소속관청에서 실제 여러 가지 기록을 담당하였던 자로 추정된다. 도서자(都書者)는 이들의 책임자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 관원에서 판관은 1인, 현감은 정의 대정 두 곳에 각 1인씩 2인이 있다. 판관은 종 5품이었으며, 현감은 종 6품에 해당하는 품계였다. 이들은 홍단령(紅團領)을 입고 주립(朱笠)을 썼으며 말을 타고 목사(牧使)의 가마를 따르고 있다. .

22. 마병 11인

전복에 병거지를 쓰고 승마한 군졸이 뒤 따르고 있다.

23. 기수 2인

청도기를 든 기수 2인이 마병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24. 성장군(城將軍) 2인

전복을 입고 전립을 썼으며 전통을 맨 장군이 말을 타고 행렬을 따르고 있다.

25. 보인(保人) 2인

전복에 병거를 쓴 보인이 뒤따르고 있다.

26. 시녀(侍女) 2인

말 탄 시녀가 뒤 따르고 있다.

27. 기수(旗手) 2인

청도기를 든 기수 2인이 마병 뒤를 따르고 있다. 이들은 전복을 입고 병거지를 썼다.

28. 조총수 2인

조총을 어깨에 매고 홍전복에 홍색의 고깔모를 쓴 군졸 2인 따르고 있다.

29. 보인(保人) 2인

전복에 병거를 쓴 보인이 뒤따르고 있다.

30. 성장군(城將軍) 2인

전복을 입고 전립을 썼으며 전통을 맨 장군이 말을 타고 행렬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1인은 보이지 않는다.

31. 마병(馬兵) 2인

전복에 병거지를 쓰고 승마한 군졸이 뒤 따르고 있다.

32. 보인(保人) 2인

전복에 병거를 쓴 보인이 뒤따르고 있다.

33. 시녀(侍女) 2인

말 탄 시녀가 뒤 따르고 있다.

34. 보인(保人) 2인

전복에 병거지를 쓴 보인이 뒤따르고 있다. 그림에서는 보인 1인이 보이지 않는다.

35. 군관(軍官) 등 3인

옥단령을 입고 병거지를 쓴 군관과 홍단령을 입고 병거지를 쓴 군관이 뒤 따르고 있다. 나장(羅將)²¹⁾ 및 심약(審藥)²²⁾, 검률(檢律)²³⁾, 영리(營吏)²⁴⁾ 등의 벼슬아치로 여겨진다.

5. 순력행차에 나타난 기치(旗幟)와 병기(兵器) 분석

제주병마수군절제사 겸 제주목사의 순력행차는 다른 지방의 순력 행차와는 달리 군대의 행진 편성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순력에 나타난 기치(旗幟)와 병기(兵器)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각기(角旗)

각기는 방위에 따라 진중의 네 모퉁이에 세웠으며, 각 병졸은 앞에 세운 이 깃발에 따라서 진영을 이루었다. 깃발은 사방 4자이며 깃대의 높이는 12자이고, 영두(纓頭)와 주락(珠絡)이 있다. 홍색과 백색이 반씩 나뉜 사각기(四角旗)다. 동남쪽 기는 위가 녹색 아래는 주황색을 띄고 이다. 서남쪽 기는 위는 흰색, 아래는 적색을 띄고 있다. 서북쪽 기는 위는 흰색 아래는 흑색을 띄고 있다. 동북쪽 기는 위는 녹색 아래는 흑색을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고조기(高照旗)

‘고추기’라고도 한다. 방위(方位)에 따라 바탕색이 다르고 팔괘문을 그려둔 것도 다르다. 동쪽의 기는 녹색바탕에 붉은 화염각(火炎脚)을 달았다. 삼진뢰(三震雷) 괘를 그리고 있다. 서쪽의 기는 흰색 바탕에 주황색 화염을 달았다. 팔태택(八兌澤)의 괘를 그리

21) 조선시대 병조 소속 경아전(京衙前)의 하나, 일명 나졸(羅卒)이라고도 하며, 의금부·형조·사헌부·사간원·오위도총부·전옥서·평시서 등 중앙의 사정(司正)·형사업무를 맡는 관서에 배속되어, 죄인을 문초할 때 매를 때리거나 귀양가는 죄인을 압송하는 일 등을 맡았다. 나장은 외아전(外衙前)으로서 각급의 진(鎭)에 배속되기도 하였는데, 그 임무는 경아전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22) 조선시대의 외직(外職),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심사, 감독하기 위하여 각 도에 파견한 종9품의 관원으로 전의감·혜민서(典醫監·惠民署)의 의원 중에서 선임하였다.

23) 조선시대 병조와 지방 관아에서 형률을 판단하던 종9품 벼슬을 가리킨다.

24) 조선시대의 감영(監營)·수영(水營)·병영(兵營)에 딸린 아전(衙前)·육방관속(六房官屬)을 가리킨다.

고 있다. 위 하나 터짐, 남쪽의 기는 적색 바탕에 녹색 화염을 달았다. 육이화(六離火)의 패를 그리고 있다. 북쪽 기는 흑색 바탕에 흰색 화염을 달았다. 오감수(五坎水)의 패를 그리고 있다.²⁵⁾ 군기의 하나로 일명 고치기라고도 한다. 기면을 동서남북중앙의 5방위로 나누고 그에 따라 동은 푸른색, 서는 흰색, 남은 붉은색, 북은 검은색, 중앙은 노란색으로 나타내고 팔괘를 그려 넣었으며 화염을 상징하는 부분을 달았다.

3. 읍성기(邑城旗)(?)

서남각기에서 동남각기까지는 적색의 읍성기가 6개 설치되어 있다. 동남각기에서 동북각기사이에는 녹색을 읍성기가 7개 설치되어 있다. 동북각기에서 서북각기까지에는 흑색의 읍성기가 6개가 설치되어 있다. 서북각기에서 서남각기까지에는 흰색의 읍성기가 6개가 설치되어 있다.

4. 청도기(淸道旗)

4개가 2개씩 함께 들고 있다. 옛날의 군기, 또는 대기치의 하나이다. 행군할 때 앞에 서서 길을 치우는 데 쓰였다. 깃발은 청색바탕에 적색 화염각을 달고 있다. 청도(淸道)라는 글씨는 확인할 수 없다. 김녕관굴에서도 살필 수 있다.

5. 금고기(金鼓旗)

2개가 그려져 있다. 주황색(朱黃色) 바탕에 적색 화염각(火炎脚)을 달고 있다. 금고(金鼓)라는 글씨를 확인할 수 는 없다. 김녕관굴에서도 살필 수 있다.

6. 영전(令箭)

화살촉이 넓은 데, 한쪽에는 어느 지역 군영 누구 대장(大將)이라 쓰고 다른 한쪽에는 영자(令字)를 주로 썼다고 한다. 군중(軍衆)에 명령을 전달하거나 또는 비밀 명령을 내리는데 사용하였다. 2개가 그려져 있다.

7. 언월도(偃月刀)

칼날의 모양이 초승달 같은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길이 약 2.1 m, 칼날의 길이 78 cm, 자루는 130 cm 정도이다. 칼날은 위가 넓고 끝이 뾰족하며 뒤로 젖혀져 있고 칼등은 두 갈래로 되어 아래 갈래에 구멍을 뚫어서 삭모(槩毛:붉은 빛갈의 가는 털)를 달고 밑에는 용의 아가리를 물리었다. 칼자루는 붉은 칠을 하여 끝에 12 cm 정도의

25) 최영진, 「팔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367~368쪽

물미(끝이 뾰족한 쇠)를 맞추었다. 2개가 그려져 있다.

8. 군기(軍旗)

영자기(令字旗) 혹은 순시기(巡視旗)로 보이나 글씨를 확인할 수 없어 군기라고 칭한다. 10개가 순력의 행렬 속에 있다.

9. 교룡기(交龍旗)

용기(龍旗), 화룡대기(畫龍大旗), 교룡기(蛟龍旗) 등으로도 불린다. 군(軍)을 친열(親閱)할 때 각 영(營)에 이 기(旗)로서 명령을 하였다고 한다. 황색 바탕에 사각기로 2마리의 용과 청, 적, 황, 백의 4채 운기(雲氣)를 그리고 화염각을 달았다. 6개가 그려져 있다.

10. 좌독기(坐纛旗)

사명기(司命旗), 인기(認旗) 등이라고도 불리는 군기를 가리킨다. 행진할 때는 주장(主將)의 뒤에 서나, 행진을 멈추면 행차의 앞 왼편에 섰다. 이 기(旗)는 영두(纓頭)와 주락(珠絡)으로 화려하게 꾸민 군기(軍旗)의 하나이다.

6. 결론

『耽羅巡歷圖』 제31면 <대정조점(大靜操點)>을 통해 살펴본 제주 목사의 순력행차에는 총 인원 108명이 참가하였으며 성벽(城壁)에 꽂았던 각기(角旗) 4개, 고조기(高照旗) 4개, 읍성기(邑城旗) 25개와 순력하는 군졸들이 들고 가는 것으로 청도기(淸道旗)와 금고기(金鼓旗)가 6개, 영자기(令字旗)와 순시기(巡視旗)로 구성되는 군기(軍旗)가 10개, 교룡기(交龍旗)가 1개, 좌독기(坐纛旗)가 1개, 말 59필이 함께 참가하였다. 물론, 군관(軍官)들은 전통(箭筒) 21개를 준비하여 매었으며, 조총수는 6개의 조총을 매고 순력에 참가하였다. 아울러 악사가 2개의 나팔을 그리고 의장물(儀仗物)로서 영전(令箭)과 언월도(偃月刀)가 각 2개씩 순력(巡歷) 행차(行次)에 참가 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인원	각기	고조기	읍성기	청도	금고	군기	교룡	좌독	말	전통	조총	나팔	영전	언월	기타
	계	4	(4)	(25)	4	2	10	3	3	59	21	6	2	2	2	
군졸	28	4	(4)	(25)	4	2	10	2	2					2	2	
악사	2												2			
마기수	2							1	1	2						
조총수	6											6				
목자5	5									5						상자
성장군	17									17	17					
군관4	4									4	4					일산
시녀6	6									6						
통인2	2															판
서자2	2															붓
교군	6									6						가마
목사	1															용복
판관	6									6						홍단령
마병	13									13						
보인	8															전복

총 순력 인원 108명은 일정한 대오(隊伍)를 형성하며 행차하게 되었는데, 청도기와 금고기를 든 기수 6인이 앞장서고, 영전과 언월도를 든 군졸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악사 2인이 나팔을 불며 앞자리에 섰으며, 곧 바로 말탄 기수가 든 교룡기를 뒤 따르게 하였으며, 아울러 군기와 조총수를 따르게 하였다. 그 뒤에는 목자가 끄는 말을 탄 군관 2인과 기수, 조총수 각 2인을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목사를 상징하는 좌독기를 들려 보냈으며 그 뒤를 말탄 군관과 상자를 실은 목자, 남장(男裝)한 시녀를 따르게 하였다. 한편 반대편 대오에는 전통을 매고 말탄 군관 9명을 따르게 하고 통인 2인도 그 뒤를 따르게 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나서 군관 2인이 앞서고 일산(日傘)을 맨 말을 끄는 목자를 호위하는 군관이 그 앞뒤에 서게 하였으며, 그 뒤를 군기와 청도기를 든 기수 각 2인씩을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목사의 말교자가 따르는데 앞에는 서자 2인, 목자1인이 앞서고 그 뒤를 마교 4인이 목사가 탄 가마를 서게 하였으며, 예비로 그 뒤에 마교 2인이 따르게 하였다. 가마 뒤로는 판관 혹은 현감으로 보이는 높은 신분의 사람이 따르게 하였으며 마병 11명도 기수 2인, 군관 2인, 보인 2인, 시녀 2인 함께 따르게 하였다. 또 그 뒤를 청도기를 든 기수(旗手) 2인이 따랐으며, 조총수2인, 보인 2인, 군관 2인, 마병 2인, 보인 2인, 시녀 2인, 보인 2인, 군관 3인의 순으로 따르게 하였음을 살필 수 있었다.

지금까지 『耽羅巡歷圖』 <대정조점(大靜操點)>을 통해 제주목사의 순력행차의 본

래 모습을 찾으려고 분석하여 보았다. 완전하진 않지만 고증을 거친 순력행차의 이해라는 차원에서 본 연구는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복합적인 순력의 순기능과 역기능 등에 대한 연구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문헌

- 김오순, 『탐라순력도산책』, 제주문화, 2001.
- 이형준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본 제주목사』, 제주시, 2005.
- 정약용(남만성역), 『牧民心書』, 대양서적, 1975
- 최영진, 「팔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 탐라순력도연구회, 『탐라순력도연구논총』, 제주시, 2000.
- 한영우,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효형출판, 1998